

새만금으로 가는 관문 특장차 단지로 자리매김 볼거리·즐길거리도 많아



1. 농식품 6차산업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랜드'
2. 로컬랜드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
3. 마전 난산 슬로푸드 식당 개관식
4. 백구면민의 날 대축제

백구의 자랑거리 4종

▲**벚꽃피는 4월 상춘객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 '전구간 도로 백구구간 8km'**
 지금은 옛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백구의 자랑이며 인근 익산, 전주에서 많이 찾는 벚꽃 명소로 꼽힌다. 특히 번영로의 벚꽃과 새로 심어 장관을 이루는 만경강 생태하천 둔방 10여km의 벚꽃길은 백구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역사 체험장이자 생태 관광지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 6차산업의 선두주자, 로컬랜드**
 로컬랜드는 2만㎡부지에 포도나무 국내외 120여종의 신비로움과 로컬푸드매장, 식당,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2013년에 개관, 지역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과 포도 수확체험, 딸기 농장 견학체험, 와인 쿠키만들기, 각종 농사 체험의 다양한 체험거리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전북도 농촌체험관광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백구면의 가장 큰 관광자원으로 농가 소득 및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이에 기여하고 있다.

▲**체험 관광형, 마전 난산 슬로푸드**
 2017년 3월에 개관한 '체험 관광형, 마전 난

만경강 생태하천 둔방 벚꽃길
 농촌체험관광지 로컬랜드
 마전 난산 슬로푸드 식당
 백구면민의 날 대축제

산 슬로푸드'는 마을 공동체인 마전난산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슬로푸드 체험관, 농가레스토랑, 회의실 등을 갖추고 인근 주변에서 생산되는 오이, 가지, 토마토 등 다양한 시설채소 등으로 농촌의 전통적인 먹거리와 오이, 딸기 따기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중추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삼락농정의 관광 자원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주민 4천여명이 하나 되는 날 '우리는 한 마음, 제14회 백구면민의 날 대축제'**
 지난 9월16일 제14회 면민의 날 대축제로 백구 주민이 모두 하나가 되었고, 40개 마을 4,000여명이 마을 이장, 부녀회장이 주축되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넉넉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었고 이 면민의 날을 계기로 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백구면이 되자고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백구면은 새만금으로 뻗어가는 김제의 관문이다. 이곳에는 전국 최대 10만평 규모의 특장차단지가 분양률 86.7%로 마무리단계에 있는 등 명실상부한 특장차 전문 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물류센터 등 많은 사업체들이 입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는 벚꽃길과 농촌체험관광지 로컬랜드 등도 백구면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김제 백구면의 자랑거리와 미래에 대해 알아봤다.

← 백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벚꽃길'. 이곳은 백구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백구의 미래

▲**특장차 전문화 단지 조성**
 2011년부터 총사업비 306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규모의 전국 최고의 특장차 전문단지가 백구에 조성되어 현재 분양률 86.7%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와 연계해 증가하는 특장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장차자기인증센터가 지난 4월 구축되었다. 두 사업을 통해 1만 410여명의 일자리와 약 600억원의 기업투자유치 그외로 연간 38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백구면에도 큰 발전을 가져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치**

백구의 희망, 백구의 미래인 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40억사업으로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문화센터건립을 통한 문화복지거점조성과 만경강 생태공원과 연계한 커뮤니티 거점조성, 만경강 연결 산책

로 조성의 품격있는 경관조성, 마을축제 개최 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가 주된 사업내용으로 사업유치를 위해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등 22개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모으고 김제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유체에 최선을 하고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정관주 면장의 한마디

“면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토록 노력할 것”

백구면은 새만금으로 뻗어가는 김제의 관문으로써 국도21호, 26호, 지방도735호의 사통팔달지역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전국 최대 10만평 규모의 특장차단지가 분양률 86.7%로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특장차와 연계한 자기인증지원센터가 구축돼 명실상부한 특장차 전문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각종 물류센터, 자동차부품단지 및 석재 가공협동화단지 등 많은 사업체들이 입주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토질이 양토와 사양토로 포도 재배가



적합지역으로 140ha, 267농가가 포도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김제시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GAP 인증 78농가로 구성된 백구농협포도공신출하회의 지속적인 우수 상품 생산 및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여 농가 소득의 효과적 증대와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관주 면장은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농식품 6차산업 선두주자, '로컬랜드', '마전난산 슬로푸드' 등 다양한 농촌 관광 체험형 관광시스템의 구축을 기반으로 관광도시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백구의 미래가 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유체에 백구면민의날에 결집 된 백구면민들과 함께 더욱 더 발전하는 백구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 전주매일 창간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로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도 저렴해져서 가계부담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임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로 만든 일반교재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경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